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질의응답(Q&A)

질병관리청

1. 질병 특성

Q1.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에 의해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농장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니파 마을(Sungai Nipah)의 이름을 따서 니파바이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는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으로 RNA 바이러스입니다.

- 상온 환경에서 과일이나 과일즙에서 최대 3일간 생존 가능하며, 22˚C에서 보관된 대추야자수 수액에서 최소 7일간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니파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면 주요 증상이 무엇인가요?

○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 또는 경증부터 급성 호흡기 증상 및 뇌염 등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사람들은 감염 초기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및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어지러움, 의식 장애 등 신경학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에는 뇌염과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4-48시간 이내에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3.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치명률은 40~75%로 알려져 있습니다.

Q4.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잠복기, 즉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나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자연 숙주인 과일박쥐에서 다른 동물과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 과일박쥐, 돼지 등과 같은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예: 혈액, 소변, 타액, 대변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예: 생대추야자 수액 또는 과일) 또는 감염된 동물의 생고기나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는 과정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입원환자, 환자를 돌보던 동거가족이나 의료진 등 일부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6.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
- 감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간병인 등
-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를 처리하는 실험실 직원
- 감염된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예: 동물 농장 직원, 도축업자 등)
- 감염된 동물으로 인해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에 노출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2. 발생 지역

Q1.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나요?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5개 국가입니다.

- 이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최근 10년 이내 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 다만,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는 거의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 현재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Q3. 현재 우리나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상황인가요?

○ 최근 발생 국가(방글라데시, 인도) 방문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감염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밀접접촉자(동거가족, 의료진 등)를 중심으로 전파되므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호흡기에 비해 높지 않지만, 높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4.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현재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이며,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 따라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동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

Q1. 니파바이러스 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최근 국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거주 국민은 니파바이러스 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최근 니파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은?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람의 검체(인후도말, 비강 및 비인두 흡인물, 뇌척수액, 소변 등)를 유전자 검출 검사법(Real-time RT-PCR)으로 니파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Q3.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Q4. 니파바이러스를 진단을 위한 검체 종류는 무엇인가요?

○ 니파바이러스를 진단을 위한 검체는 인후도말(Throat swab), 비강 및 비인두 흡인물(Nasal and Nasopharygeal aspiration), 뇌척수액(CSF), 소변(Urine) 등이 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독감,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 상피세포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호흡기 검체인 인후도말, 비강 및 비인두 흡인물이 주검체로 필요합니다.
- 또한, 호흡기 감염 후에 바이러스가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확산되어, 뇌, 폐, 신장 등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며, 이 경우 뇌척수액이 주검체로 필요합니다.
- 의심 환자의 증상에 따른 주검체가 진단검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혈액(전혈, EDTA tube) 검체는 보조적인 검체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Q5.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발열이나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만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하나요?

○ 네, 임상증상 기준에 부합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Q6. 증상발현 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검사 횟수를 2번으로 결정하나요?

○ 첫 증상 발현 72시간 이전에 채취한 검체로 검사할 경우, 2차 검사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의심 사례의 경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인검사 1회 음성 및 다른 감염병 진단 또는 경험적 치료에 효과가 있을 때 임상경과를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으로 첫 증상 발현 72시간 이내에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4.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Q1.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 이송시, 환자는 수술용마스크 착용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의사환자로 분류된 사람을 배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시,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구급차 운전자는 호흡보호구(N95 등)와 장갑, 이송 담당요원은 전신보호복, 덧신, 장갑(2겹), 호흡보호구(N95 등)를 착용합니다.

Q2.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접촉자 조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의사)환자의 접촉자 범위는 환자의 첫 증상 발생시부터 이동경로에 따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 접촉자로 분류되면, (의사)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 즉, 마지막 접촉일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발열 등 감염 관련 증상이 없을 경우, 그 다음날 감시 및 격리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접촉일이 4.1일인 경우, 4.16일 0시 감시종료(격리해제)합니다.

Q3. 검역소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은 누가 하나요?

○ 검역소에서 의사환자 발생시, 검역관이 의사환자에게 안내문 제공, 격리입원, 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 후, 검역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배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다만, 검역소 구급차 이용 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할 수 있습니다.

Q4. 동남아시아 여행 후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5. 가족이나 동거인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리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격리를 해야하나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등 동일 가구 내 거주하거나 머물면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확인된 사람은 잠복기(14일)동안 격리를 실시합니다.

- 격리기간동안 접촉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상이 나타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방 및 치료

Q1.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예방할 수 있나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다음과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개인위생 (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여행 전, 방문할 지역의 현지 유행 풍토병 및 풍토병 예방수칙 확인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박쥐, 돼지 등 동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 발생지역 내 생대추야자 수액 및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 등 섭취 주의
- (의심)환자 접촉 금지
- 병원 방문 시 손위생,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Q2.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까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므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 시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료제가 있나요?

○ 아직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